

#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 한국산으로 뚫는다

대우인터내셔널 바르샤바 이상훈 지사장



## 인터뷰 대상자 약력

- 이름: 이상훈 지사장
- 학력: 한양대학교 산업 공학과 졸업
- 경력: (주) 대우 무역부문 기계부 입사 (1990)  
호주 시드니 지사(1996-199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사(2002-2006) 근무  
(주)대우인터내셔널 폴란드 바르샤바 지사 (2010-현재)

### Q : 대우인터내셔널을 간단히 소개해 주십시오.

A : 대우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의 종합상사로서 주요 사업 분야는 International Trading, Project Organizing, Resource Development, Manufacturing Investment이며,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의 해외 사업 개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프로젝트 분야의 '종합 솔루션 제공자'로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20년까지 650억불 매출 목표를 설정, 명실공히 World Top Class Trader, Investor, Developer로서 자리 잡고자 합니다.

폴란드에서는 1991년 바르샤바지사를 설립,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무역부문은 철강, 비철, 섬유, 화학, 자동차 부품, 기계 등에 대한 수출 및 3국간 판매를 연간 2억불 규모로 진행 중이고, Project 사업으로는 풍력발전사업을 포함한 전력 및 Infra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Q :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은 2010년 기준 총 설비용량 및 발전량은 각각 1180MW와 1485GWh로 2000년 풍력발전 개발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2005년 대비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풍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경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47%를 풍력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은 고속 성장

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Q :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A : 폴란드는 전력생산의 90% 이상을 석탄과 갈탄에 의존하여 총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매우 높는데 2004년 EU 가입을 기점으로 EU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EU의 요구는 2020년까지 폴란드 내 총 에너지 생산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175억~30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폴란드 기후는 일사량 분포가 불규칙한 반면, 평균 풍속은 초당 5.5~7m(표고 50m 기준)에 달해 풍력자원으로는 중동부 유럽 최상으로 평가받고 있어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 최근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A : 최근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에 있어서 주요 이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풍력발전소 건설시 송배전망 접근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력공급업체들이 비용발생을 이유로 송배전망 접속 제공에 소극적인데다 풍력발전단지 개발자들이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송배전망 접속요청을 남발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풍력발전 단지가 계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프로젝트의 최종적인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풍력발전소는 15년에서 20년 운영을 전제로 예상 발전량 및 발전된 전기의 기대 판매가격에 근거한 수익률 분석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예측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러한 분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순탄치 않은 토지임대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소 설립을 위해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선호하나 토지소유자들이 풍력발전소에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은 풍력개발단지를 위한 토지 획득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애매한 계약규정 및 법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Q : 대우인터내셔널의 폴란드 풍력시장 진출 전략은 무엇인지요?**

A : 폴란드의 풍력 사업은 매우 전망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많이 떨어져 있어 상시적인 사업 개발이 어렵다는 지리적 제한과, 현지 풍력단지 개발을 위한 각종 절차가 폴란드어로 진행된다는 언어적 제한으로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업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은 폴란드 전력청 및 풍력관련 디벨로퍼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산 풍력터빈이 사용된 최초의 풍력발전 단지를 개발, 민간전력공급(IPP)사업

# interview

자로서 전력청향 전력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풍력단지는 추후 한국산 풍력발전 설비의 시험운영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폴란드 내 각종 풍력발전단지 건설 입찰에 한국산 터빈 등 풍력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2차 목표입니다.

## Q : 한국기업들이 폴란드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한 사례가 있는지요?

A :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풍력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 조만간 우리도 성공사례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Q : 한국기업들이 폴란드 풍력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선결 과제 혹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 풍력을 포함한 폴란드의 발전 시장은 매우 잠재성이 있습니다만,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 드린 지리적, 언어적 제약 조건 및 서유럽 경쟁사들의 시장 선점으로 기업들이 투자 결정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시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장정보 및 수출입은행 등 각종 지원기관의 지원 제도 등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우인터내셔널 같이 현지 시장에 밝은 기업과 전략적으로 협력, 공동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